

제목: "성도가 받을 도전"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3절

하나님은 흠어진 성도들에게 세상의 도전에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그 도전이 있는데 도전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도전이 올 때에 성도들이 이기를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잘 준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_\_\_\_\_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_\_\_\_\_하고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3. \_\_\_\_\_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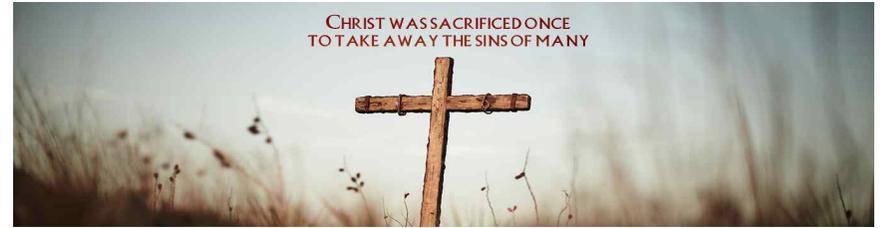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베드로후서 3장 1-13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2 Peter 3: 1-13 신약 386 페이지 Presider
- 말 씬 ..... "성도가 받을 도전"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 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집 앞의 약국)

어릴 때 살던 집은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던 길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 길로 나가면 이런 저런 상점들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약국이 하나 있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 혹은 감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보다 약국으로 뛰어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국 안에는 정작 약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확실한 기억은 약국에 선반이 많이 있었지만 약들은 띄엄띄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약국은 동네에 있던 오직 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곳이며 아프면 뛰어가던 곳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온지 40년이 넘은 지금도 약국을 생각할 때 물론 CVS 나 Rite Ade 같은 곳이 가까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는 어릴 적 동네에 있었던 오직 그 한 약국, 선반이 텅 빈 그 약국이 늘 먼저 생각난다. 그 약국은 많은 약들로 꽉 차있지 않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날 때면 가끔 그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텅 빈 것이었지 그 약국은 동네 사람들에게 충분한 곳이었던 것이다. 그 약국은 약으로만 사람들을 낮게 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약국만이 아니었다.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생각해 본다. 과연 우리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국과 같은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약국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약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품을 이야기하기 쉽다. 하지만 약국은 마켓이 아니다. 약국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뒤돌아보면 교회가 만물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욕심의 만족까지 채워주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마음에 허무함을 채우는 일에는 그리 무게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교회는 약이 많이 없어도 온 동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것과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6절)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약국의 일이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 회복하는 일이다.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되어야한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약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선반에 화려한 색깔로 포장된 많은 종류의 약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어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다.

우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더욱 되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이 이일에 열심을 다하여 뛰어드는 약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 때에 우리교회가 세워진 진짜 가치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5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목장 모임

비버튼/벤쿠버 목장	4월 29일(토) 오후 5시	문미화 집사님 덕
포틀랜드 목장	4월 30일(주) 친교 후	박민수 집사님 덕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